

'이제 민원상담도 인공지능 시대'

전주시, 민원상담SW 개발 착수 내년 연말까지 10억7000만원 투입

전주시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민원상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민원상담시대를 열기로 했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지역SW기업인 (주)스코인포(대표 두근철)와 함께 제안한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소프트웨어(이하 'SW')개발 사업이 '2018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한 이 사업은 지역

내 특화된 산업기반과 현안문제에 SW융합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SW제품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SW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시와 진흥원은 이달 말부터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국비 5억원과 시비 3억원, 기업부담금 2억7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투입해 '큐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지능 대화형 민원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음

성기반 대화형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바일·민원콜센터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품을 개발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공공민원 분야에도 적용하는 지역SW제품 상용화는 물론, 지역SW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향후 공공기관에 판매되면 민원 폭주 시간대와 심야시간, 휴일에도

주요 민원 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 응답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SW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은 인공지능 기반 SW개발에 지역SW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보건소와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마사들이 함께 진행하는 '나눔의 안마봉사'가 시민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눔의 안마봉사, 1년 더'

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전주시보건소와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마사들이 함께 진행하는 '나눔의 안마봉사'가 시민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마봉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주시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안마를 원하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매월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회원 중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안마사들이 10명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맞춤형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보건소와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는 당초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협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안마봉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조현준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시민들 호응으로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안마사를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마사는 의료법 제 82조에 의거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는 유보직종으로,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에는 총 19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헬스키퍼', '안마바우처', '시각장애인마사 파견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송효철 기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4일 연구원에서 (주)라미팜, (주)푸드 바이오와 지역 곤충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완산구, 장마철 인명 피해 사전 예방 나서

하천·양수기 등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과 산사태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장마철에 대비해 급경사지와 하천, 세월교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보관용 양수기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우선, 완산구는 본격적인 장마 시작되기 전인 5월과 6월 급경사지 11개소와 전주천·삼천 하천 세월교 2개소, 축대·옹벽·석축 3개소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우천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세월교 구조방비 설치지역 22개소의 구명환과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와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우천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완산구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4일 전주천에서 구청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수기 사용 능력 향상과 우천피해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완산구는 지난 4월에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대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보관중인 양수기를 점검했으며, 가동되지 않는 양수기에 대한 수리도 모두 마쳤다.

곤충자원 산업화로 미래식량자원 시장 선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라미팜·푸드바이오와 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래교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자원 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미래식량자원 시장을 선점기로 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유강열, 이하 연구원)은 24일 연구원에서 (주)라미팜(대표이사 최진호), (주)푸드 바이오(대표이사 문광현)와 지역 곤충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적 관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식적 식품 원료로 인정해주던 생분 류퀴루리미와 갈색저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곤충 4종이 일반식품 원료로 등재되면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한 곤충 소재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회사법인 (주)라미팜(퀴루리미 생산, 원료가공), (주)푸드

바이오(퀴루리미 제품개발, 유통·마케팅)와 상호 협력해 지역 곤충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와 발맞춰 지역 곤충산업 등 농·생명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히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사범

'경찰 93건·선관위 64건'

경찰, 후보비방 33건으로 가장 많아 금품향응은 25건
선관위, 적발된 선거사범 중 10건 검찰 고발 53건 경고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24일 전북지역 선거사범은 경찰 93건, 선거관리위원회 64건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모두 93건(15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33건(48명), 금품향응 25건(43명), 공무원 개입 10건(26명) 등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사범 중 64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14건 검찰송치, 15건은 수사종결 했다.

또 전북선관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6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6건, 인쇄물 관련 13건, 허위사실공포 11건 등이다.

선관위는 적발된 선거사범 중 1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3건을 경고조치 했다.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에 비춰 후보 등록이 끝난 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선거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